

# “민족의 소원 남북 평화 노래로 풀어냈죠”

## 여수 출신 대학교수, 민족 평화 기원 듀엣곡 눈길

■ 한양여대 서혁신·팝페라 가수 김효민

여수 출신 실용음악과 교수와 전남 동부에서 활동하는 팝페라 가수가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듀엣곡 ‘war is over’ (워 이즈 오버)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양여대 실용음악과 교수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인 서혁신(사진 왼쪽)과 팝페라 가수 김효민은 6일 “민족의 평화를 기원하고 남북화해 분위기 및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염원하며 ‘war is over’ 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과거 엠넷 뮤직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보이스 코리아’를 통해 알려진 낯익은 가수이며, 김효민은 여수와 순천·광양을 중심으로 전남과 광주, 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팝페라 가

수다. 곡의 앞부분은 로커 스타일의 목소리를 내뽐는 서혁신이, 중간부분 웅장한 목소리는 팝페라 김효민이, 마지막 부분은 두 가수의 특색있는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가사는 평화를 향한 염원이 한껏 담겨있다. ‘힘차게 타오르네 평화의 불꽃 우리가 만들어야할 이 땅의 시간’으로 시작해 ‘모두가 바라왔던 그 순간이 이제 우리 눈앞에 이제 우리 눈앞에’로에서 절정을 맞는다. 이어 ‘너와 나 영원히 함께 만들어가야 할, 평화의 노래가 이제 시작된거야’로 민족의 소원을 풀어냈다.

서 교수는 “고향인 여수에서 활동을 하던 중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한반도의 남북 여수에서 평화의 노래를 북으로 출발시켜 보자는 의미로 곡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고향인 여수에서 활동을 하던 중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한반도의 남북 여수에서 평화의 노래를 북으로 출발시켜 보자는 의미로 곡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서구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 운영

광주 서구는 6일 인근 공원을 찾는 주민 누구나 전통놀이 전문가와 함께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동네 공원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전남농기원, 지내산업 공동연구 업무협약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잡업연구소는 최근 화순 소재 옹금곤충산업과 지내 대량사육에 관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사업, 지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육, 가공, 유통 기술 지원 등을 진행한다.



### 전남선관위,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2018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진 오소이, 선 조혜민, 미강정현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대사로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미스코리아 입상자 3명을 홍보대사로 위촉, 아름다운 선거를 전파하는 등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5일 위촉식을 마친 이들은 목포역에서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선관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2018 광주전남 미스코리

아 30여명과 함께 ‘아름다운 선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전남선관위 김정곤 사무처장은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와 함께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어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보대사들은 “우리동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고,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산 기자



### 전남도교육청, 2018 릴레이 발명 체험한마당 성료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신안 임자중학교에서 임자도 학생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상상을 현실로! 체험으로 탐구하는 정기군정발명 체험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교육청과 특허청이 주최하고, 전남발명교육연구회와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목포대학교와 목포 MBC 등이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섬마을의 에디슨을 찾아가는 특별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진동로

봇, 캐나다 비행기, 친환경 목걸이 만들기, 휴넷 코딩체험 등 20여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과학·발명행사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대 만들기 체험과 목포대에서 함께한 ‘WISET(여성과학기술인센터) 주니어랑 휴넷 코딩 체험 프로그램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발명교육연구회 선생님들은 매일 도서벽지의 작은 학교를 찾아 릴레이 발명 체험 한마당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애란 기자



### 전남농협, 현충일 휴일 반납 농촌일손돕기

농협 임직원 200여명은 6일 현충일 휴일을 반납하고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촌현장을 찾아 집중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조선대 미술대학,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업무협약

조선대 미술대학은 최근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과 2018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6.13 지방선거 레이다 D-6

### 구충곤 “국가유공자 명예 드높일 것”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이날 하루 유세를 전면 중단했다.

이에 따라 유세차량은 물론 선거운동원도 일체의 선거홍보 활동을 중단하고 환경정화봉사활동에 나섰다. 선거운동원은 이날 오전 화순을 주도로 모임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구충곤 후보는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을 위로한 뒤 “한반도에 평화와 번



영이 찾아온 것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위업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 정연선 “정기군정 보고회 운영”

정연선 민주평화당 신안군수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직한 행정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기군정보고회와 신안평화신문고’ 등의 정책이 담긴 소통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정기군정보고회는 읍·면 현지에 나가서 도서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안평화신문고는 군민 청원과 군민 아이디어 접수 두 가지 창구를 개설해 군민 의견을 적극 접수할 계획이



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투명한 군정 운영을 위해 부정부패감시단도 운영할 방침이다”며 “정직을 기반으로 군민과 소통할 때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고길호 “신안 청년포럼 회원 지지”

고길호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안군 읍면 청년회장과 청년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 신안군 청년포럼’ 회원 30여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년포럼 회원들은 지난 5일 신안군청 앞 광장에서 “우리의 안식처가 부패로 얼룩지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고 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안의 발전이 정의와 청렴의 건전한 토양위에 있기를 바라며, 민선 6기 청렴하게 군정을 이끌어



는 고길호 후보가 군민으로부터 선택 받아야 하다”고 발표했다. 고길호 후보는 “신안의 미래도약 100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노인과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 권오봉 “보훈 유공자 예우 다할 것”

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는 63회 현충일인 6일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불합함이 없이 명예롭게 일상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날이 말했다.

그는 “유공자와 가족들이 소외되지 않고 예우 받는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훈수당 등에 대해서도



조례개정으로 현실화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여수시 차원에서 다시 꼼꼼하게 챙겨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곽재영 기자

### 김재무, 박영선 의원 집중유세 지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한반도에 부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에 광양시도 함께 하기 위해 여당인 김재무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광양을 5일시장을 찾아 김 후보의 유세차량에 오른 박 후보는 “광양이 미래첨단 공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재도 모으고 예산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은 김재무 후보라는 것을 광양시민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며 “나라는 문제인, 전남은 김영록, 광양



은 김재무에게 맡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재무 후보가 광양보건대 정선화,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개선, 광양항의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며 “확실한 예산은 집권 여당 시장이 최고다. 다른 것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광양=정경화 기자

### 이길운 “해남 애국·보훈 공원 추진”

이길운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는 6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아 해남 현충탑을 참배하고 분향, 헌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하루 유세 현장에서 로고송 및 선거운동원들의 울동을 멈추고, 경건한 마음과 낮은 자세를 갖춘 것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나라를 위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신 애국지사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참전용사님, 민주주의를 위해 항거하신 모든 분들의 고



귀한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추모공간 및 보훈회관 등을 갖춘 ‘해남군 애국·보훈 공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병태 기자